

## 2022년 4월 · 5월 해외교육정보 동향자료

- 재외 한국교육원장 보고 자료 -

2022. 5.

교 육 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 차 례

### 〈일본〉

(삿포르) 전국학력조사 실시, 4년 만에 이과(과학) 실시 및 온라인 응답도 확보 ..... 1

### 〈독일〉

(독일) 독일 대학의 변화 ..... 3

###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고등법원, 교육 및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적법 판결 ..... 7

(뉴질랜드) 해외 유학생 7월 31일부터 전면 입국 허용 ..... 8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교육부, 전국 교육기관 시설 혁신 프로젝트 추진 ..... 9

(하바롭스크) IT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School 21」 운영 ..... 11

### 〈베트남〉

(호치민시) 호치민시, 교육부장관에 정규교원 양성과정 승인 요청 ..... 13

### 〈파라과이〉

(파라과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결정 ..... 15



교육원명	샛포로 한국교육원
제 목	전국학력조사 실시, 4년 만에 이과(과학) 실시 및 온라인 응답도 확보
원출처	【全国学力調査】4年ぶりに理科を実施 端末からの回答も拡充 교육신문(教育新聞) (4.19.) <a href="https://www.kyobun.co.jp/">https://www.kyobun.co.jp/</a>

## □ 개요

- 4월 19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학력·학습 상황 조사 실시

※ 본 조사는 학력 및 학습 현황 파악 및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 중학교의 경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첫 조사임

### <전국학력·학습 상황 조사 개요>

- 대상: 초등학교 1만 9,007교, 중학교 1만 282교 참가(국·공·사립 대상)
- 학력 조사: 1교시 **국어**, 2교시 **산수·수학**, 3교시 **이과(과학)**  
※ 이과(과학)는 2018년도 이래 4년 만의 출제임
- 학습 상황 조사
  - **학생 대상**(20만명 정도) **질문지 조사**에서 단말기를 이용한 응답 확보  
※ 설문 내용: 생활 습관, 학습 환경, 각 교과에 흥미·관심 및 수업의 이해도, 가정학습 상황, 가정·학교에서의 ICT의 활용 상황 등
  - **학교에 대한 조사** 실시  
※ 설문 내용: 학교의 지도방법, 학습평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따른 임시 휴교 일수와 그간의 학습, 학교행사 실시상황 등

- 조사 문제와 해설 자료 등 상세 내용은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7월 말 조사 결과 공표 예정

## □ 주요 내용

- 각 교과목 문제는 이전 학년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습 내용 및 영역을 고려하여 출제되었음. 나아가, 문제 자체가 학습 시 중점 지도 사항과 길러야 할 역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는 초·중학교에서 「신학습지도요령」<sup>1)</sup>이 전면 실시된 이후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

나 학습활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을 상정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장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나 GIGA 스쿨 구상을 근거로 ICT를 활용한 학습활동 등을 도입한 문제가 눈에 띄었음.

- 초등 산수의 경우, 「신학습지도요령」으로 필수가 된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도형의 의미나 성질을 고찰하는 문제가 출제됨.
- 초등 이과(과학)에서는 곤충이 자라는 방법과 주요 음식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는 문항이 출제됨.
- 중학교 국어에서는,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의 코멘트 기능을 사용하고, 친구의 의견을 기본으로, 문장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생각하는 기술 문제가 나왔음.
- 생활 습관이나 학습 환경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는 각 교과에 흥미·관심이 나 수업의 이해도, 가정학습 상황 등에 덧붙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ICT의 활용 상황도 질문함. 온라인 회신은 4월 19일에서 28일 사이에 이뤄짐.
  - 학교에 관한 질문 중 지도 방법, 학습평가 등과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따른 임시 휴교 일수와 그간의 학습, 학교행사 실시상황 등도 파악함.
- 조사 문제와 해설 자료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이번 조사 결과는 7월 말 공표하며, 여름방학 이후부터의 수업 개선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임.

1) 2017년 3월 신학습지도요령이 공시되어,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2021년도부터 전면 실시됨.



교육원명	독일 한국교육원
제 목	독일 대학의 변화
원출처	문서 내 기재

## □ 배경

1990년대까지 독일의 대학은 석사, 박사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유럽 모든 나라가 대학 시스템을 통일하기로 한 1999년 볼로냐 협정에 따라 2002년부터 학사과정을 도입함. 이로써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2년으로 수업 기간이 변경되어 과거에는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석사과정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짧아진 3년의 학사과정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낮추었음. 이로 인해 독일의 대학생 수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sup>2)</sup> 그러나 증가한 학생 수에 비해 대학 수업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에 따른 기업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독일 대학 역시 변화하고자 노력 중임.

## □ 주요 내용

### 1. 독일 대학의 변화

#### 가. 입학 정원제 적용 학과의 증가<sup>3)</sup>

2000년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3.3%로써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으나 학사과정이 도입된 후로는 대학 진학자들이 꾸준히 늘어나 2021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55.8%에 이르렀음.<sup>4)</sup>

이에 따라 대학 진학 경쟁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의학<sup>5)</sup>, 치의학, 약학, 심리학 등 몇몇 학과에서만 성적 평가 결과로 진학 여

<sup>2)</sup>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21/umfrage/anzahl-der-studenten-an-deutschen-hochschulen/#:~:text=Im%20Wintersemester%202020%2F2021%20waren,eine%20akademische%20Ausbildung%20absolvieren.>

<sup>3)</sup>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detail/hamburg-berlin-und-das-saarland-mit-den-hoechsten-nc-quoten>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detail/das-abi-entscheidet>

<sup>4)</sup> 이 글에서 대학 진학률은 같은 해 출생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말한다.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005/umfrage/entwicklung-der-studienanfangerquote/#:~:text=Im%20Studienjahr%202021%20lag%20die,der%20Bevölkerung%20des%20entsprechenden%20Geburtsjahres>

부를 결정했고, 대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음.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전통이 깨지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성적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고 있음.

독일의 대학 진학 결정기관인 고등교육센터(CHE, Center for Higher Education)<sup>6)</sup>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22년도 아비투어 성적에 따라서 지원자의 입학이 결정된 학과가 가장 많은 대학은 함부르크, 베를린, 자알란트주 순으로 나타남. 함부르크 대학의 경우 전체 학과의 65.2%, 베를린 대학은 전체 학과의 65.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비투어 성적 경쟁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구동독 지역인 튀링엔주,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주 소재의 대학에서는 전체 학과의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 경쟁을 통해 입학함.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지원자들이 구서독 대도시 소재의 대학을 더 선호함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 재학생이 5만 명 이상인 대학 중 가장 입학하기 쉬운 대학은 입학 정원제 적용학과가 전체 학과의 23%에 불과한 도르트문트 대학인 것으로 나타남. 재학생 수가 17,000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 입학이 어려운 대학은 자브뤼켄 대학(65%), 라이프찌히 대학(63%)으로 나타남.

입학 정원제가 적용되는 학과는 전공, 대학 형태<sup>7)</sup>, 졸업 시 부여 학위(학사, 석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학, 경영학, 사회과학 학과들은 독일 전체 대학의 50%가 입학 정원제를 적용하고 있음. 공학 관련 학과는 독일 전체 대학 중 약 70% 대학에서 입학 정원제를 적용하고 있어 아비투어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었음. 입학 정원제를 적용하는 학과들은 주로 이론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종합대학(Universität)보다는 실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에서 두드러짐. 졸업 후 학사를 취득하는 전공의 경우 전체 대학 중 42%, 석사를 취득하는 전공의 경우 전체 대학의 39%가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였으며, 종합대학의 학과들은 37%, 응용과학대학의 학과들은 42%가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듀얼 시스템 전공학과와 확산

독일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 후 취업 역시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대학 진학자들은 듀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공학과를 선호하

<sup>5)</sup> 현재 의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20%는 아비투어 성적을 통해서, 20%는 7년 동안 입학을 기다린 대기자들에게 입학이 허락되며 나머지 60%는 대학들이 정한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

<sup>6)</sup> Centrum für Hochschulentwicklung, <http://www.che.de>

<sup>7)</sup> 종합대학(Universität)과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응용과학대학에서는 실용적인 학문을 다루어 직업과 연계된 전문 기술을 양성



고 있음.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체에서의 실습 병행을 특징으로 꼽아왔던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주로 중등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음. 하지만 이 듀얼 시스템이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붐을 이루고 있음. 독일 대학교육 관련 정책 자문기관인 고등교육센터(CHE)와 기업체 인력 양성 연구소(f-bb)<sup>8)</sup>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sup>9)</sup>에 따르면 기업체 실습과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를 연계하는 듀얼 시스템 학과의 재학생 수가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4배 증가하였고, 현재 독일에는 2,000개의 듀얼 시스템 전공학과에 122,000명의 재학생이 있음. 이는 전체 독일 대학생 수의 4.2%에 불과하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연구 결과에서 듀얼 시스템 전공학과 학생 비율은 주정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자알란트주가 전체 대학생의 33%로 가장 많고, 바이에른주는 20%, 기업체가 많지 않은 구동독의 작센 안할트주는 5%로 낮았음.

듀얼 시스템 전공학과 대학생들은 소속 기업체에 따라 매월 700유로에서 1,150유로 월급을 받으며 일정 기간 소속 기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음. 듀얼 시스템 대학생 다수는 학부생이며 전공별로는 경영 및 법학 37.2%, 공학 23.1%, 간호학 15.1% 순임.

대학의 듀얼 시스템에 대해 대학과 재학생, 기업체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듀얼 시스템 전공학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것을 꼽았음. 기업체가 듀얼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학생들이 사전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78.7%), 필요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67.2%), 기업체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65.6%)을 들었음. 독일에 학사과정이 도입된 이후 기업체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 지식은 있지만 이를 직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습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sup>10)</sup>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년간 듀얼 시스템 전공 학생을 뽑는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각 주정부의 교육부장관 협의체는 대학의 듀얼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음.<sup>11)</sup>

## 다. 다양해진 대학생의 구성<sup>12)</sup>

8) Forschungsinstituts Betriebliche Bildung

9)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듀얼 시스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중 가장 광범위한 연구이다.

[https://www.bmbf.de/SharedDocs/Publikationen/de/bmbf/4/677798\\_duales\\_studium\\_kurz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7](https://www.bmbf.de/SharedDocs/Publikationen/de/bmbf/4/677798_duales_studium_kurz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7)

10) <https://www.tagesschau.de/inland/bologna-prozess100.html>

11)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detail/duales-studium-in-deutschland-grosse-laenderunterschiede-bei-studienangebot-und-nachfrage>

12)

독일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인 아비투어가 필수였으나 학사과정 도입 후에는 아비투어가 없어도 직장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3,240명('02) → 15,161명('22) 5배 증가)

이러한 경향은 각 주별로 차이를 보이며 구동독 지역인 튀링엔주가 전체 신입생의 10.8%가 직장경력자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뒤로 함부르크가 4.7%를 차지함. 직장 경력자 대학 신입생들의 평균 나이는 30세로 아비투어로 진학한 신입생보다 10살 정도 많으며, 아비투어 없이 대학 진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졸업장과 직업 경력과 직장생활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 많을수록 대학에서 전공할 수 있는 학과 선택의 폭이 넓어짐.

이처럼 직장 경력을 쌓은 후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각 대학이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전공을 많이 제공하고, 전에는 3년의 직업교육과 최소 6년의 석사과정 기간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지만, 학사과정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장기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는 꾸준히 교육받아야 한다는 평생교육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대학 신입생 수치뿐만 아니라 직업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는 대학생<sup>13)</sup>의 수는 2019/20년도에 전체 대학생 수의 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년 겨울 학기에 총 223,000명이 직장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독일 내 대다수 공립대학은 직장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다수는 학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다 융통성이 큰 사립대학을 선택하는 추세임.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aföG)<sup>14)</sup>에 따른 학자금 용자는 정규 직장을 가진 대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새로 들어선 연방정부는 대학 용자금 지원법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개정하여 직장 병행 대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임.<sup>15)</sup>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detail/neuer-hoechststand-66000-studierende-ohne-abitur-in-deutschland>

13)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직장을 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는 학생을 말한다.

14)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15)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detail/hoechstwert-bei-anteil-der-teilzeitstudierenden-trotz-schlechter-rahmenbedingungen>



교육원명	뉴질랜드한국교육원
제 목	[코로나-19] 뉴질랜드 고등법원, 교육 및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적법 판결
원출처	뉴질랜드 헤럴드(4.8, 4.9)

## □ 주요 내용

- 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은 정부의 교육 및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명령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소송에서 **정부의 백신 접종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 한편, 2월 초 경찰과 군인이 제기한 동일 취지 소송에서 동일한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사 단체(NZTSOS)와 의사 단체(NZDSOS)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소위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 장전(The Bill of Right)’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 고등법원은 소위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함.
-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4.4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백신PASS 검사’ 및 ‘QR 코드를 활용한 동선 체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해제함.
-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과거 학교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 무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에서 배제된 인력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생을 매개로 한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학교가 백신 미접종 인력(교직원)을 여전히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번 판결로 백신 미접종 인력을 근무에서 배제하였던 학교의 고용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함.

교육원명	뉴질랜드한국교육원
제 목	해외 유학생 7월 31일부터 전면 입국 허용 - NZ 교육부 「2022-2030 국제교육 전략(안)」 발표
원출처	뉴질랜드 스타프(5.11), NZ헤럴드(5.13), 뉴질랜드 교육부(5.13)

## □ 주요 내용

- 뉴질랜드 총리(Jacinda Ardern)는 당초 10월로 기 발표했던 국경 전면 재개방을 **7월 31일로 앞당긴다**고 5월 11일 발표함.
- ※ 국경 전면 개방에 따라 해외 유학생도 '22.2월 5천명 규모의 일시적 입국 허용을 시작으로 **7월 31일 이후부터는 입국 전면 허용**
- 이에 맞추어 교육부(장관 Chris Hipkins)는 5월 13일 「2022-2030 국제교육 전략안(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진행
- ‘2022-2030 국제교육 전략(안)’은 Covid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과 재건, Post-Covid 시대의 새로운 미래 구축을 위해, 교육 분야와 외교, 통상, 산업 등 분야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이외 수업료 납부 9학년 미만 해외 유학생 금지조치\* 해제 등의 내용이 담김.
- \* 해외 유학생이 등급(Decile)이 좋은 학교로 집중되면서 등급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
- 대부분 교육기관은 정부 발표에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교육부 장관은 1만명대로 하락한 유학생 수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유학생 출신국 다양화와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 Covid-19 팬데믹 이전 뉴질랜드 내 유학생은 연간 약 120천명 수준이며, 유학 관련 시장은 약 4조원(51억 NZ\$) 규모임.
- 다만, 국경 개방으로 그간 억눌렸던 해외 인재 유출(Brain Drain), 교사 해외 취업이 늘어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음.



교육원명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제 목	러시아 교육부, 전국 교육기관 시설 혁신 프로젝트 추진
원출처	러시아 언론매체(2022. 5. 5.) ( <a href="https://ugrukapitalnyj-remont-shkol-i-detskij-sadov-prodolzhaetsya-po-vsej-strane/">https://ugrukapitalnyj-remont-shkol-i-detskij-sadov-prodolzhaetsya-po-vsej-strane/</a> )

## □ 배경

- 러시아 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로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 개축 필요성 대두
- 러시아 교육공동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교육기관 시설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 주요 내용

- 러시아 교육부는 노후화된 유·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및 개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은 앞으로 최신식 교육장비와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 공간에서 다가오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발표함.
-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프로젝트 중장기 계획은 「러시아 교육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임.
  -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전역에 있는 교육시설 730,000개가 새롭게 리모델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첨단 교육시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임.
  -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첨단 교육장비들도 구입하고, 교사들의 교수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계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임.
- 러시아 교육부 온라인 언론매체에서는 교육기관 시설 혁신 프로젝트에 신규 학교시설 건축도 포함된다고 하였음.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 체첸 공화국에서는 향후 47개의 초·중등 학교시설이 건설되어 학부모,

학생 및 교사들에게 편안하고 현대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안내함.

## □ 향후 전망

- 러시아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교육기관 시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식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러시아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교육원명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제 목	IT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School 21' 운영
원출처	<a href="https://tass.ru/obschestvo/14451749(2022.4.22.)">https://tass.ru/obschestvo/14451749(2022.4.22.)</a>

## □ 배경

- 지역 내 성인들을 위해 IT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School 21」이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2023년부터 우그라주에 설립됨

## □ 주요 내용

- 모스크바에서 주지사와 이사회 의장에 의해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우그라 주정부와 스페르방크 간 상호 협력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에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School 21」이 우그라주에 설립될 예정임. 본 협약에 의해 우그라주 지역주민들은 IT기술, 지역 홍보, 대외관계 및 청소년 교육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됨.
- 협약서는 정보기술 분야 인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School 21」개교는 2023년 초로 계획되어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카잔, 노보시비르스크 등 3개 주에 「School 21」캠퍼스가 있으며 연간 등록 인원은 2,000명임.
- 「School 21」에서는 3단계 시험을 통과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IT 분야\* 교육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캠퍼스 위치는 수르구트의 중심지역에 자리 잡을 예정임.

\* 알고리즘, 그래픽, 유닉스, 웹, 모바일 개발, 보안, 네트워크 기술, 빅 데이터, 인공지능, 13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등

- 스페르방크 이사회 의장 그레프는 「School 21」은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우그라 주지사 코마로바는 「School 21」을 통해 앞으로 우그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 □ 향후 전망

- 알고리즘, 그래픽, 유닉스, 웹, 모바일 개발, 보안, 네트워크 기술, 빅 데이터, 인공지능, 13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정보화 인재 개발 및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교육원명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제 목	호치민시, 교육부장관에 정규교원 양성과정 승인 요청
원출처	<a href="https://ttbc-hcm.gov.vn/tphcm-de-xuat-chinh-phu-va-bo-gd-dt-dieu-chinh-nhie-u-quy-dinh-phu-hop-dac-thu-phat-trien-19473.html">https://ttbc-hcm.gov.vn/tphcm-de-xuat-chinh-phu-va-bo-gd-dt-dieu-chinh-nhie-u-quy-dinh-phu-hop-dac-thu-phat-trien-19473.html</a>

## □ 배경

- 교육훈련부(장관 Nguyen Kim Son)와 호치민시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호치민시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실무회의 개최(4.25.)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의장(Duong Anh Duc)은 교육 훈련부에 호치민시의 각종 교육규제 해제를 건의

## □ 주요 내용

### 【호치민시 교육목표 및 개발 방향 제안】

- (국제교육 과정 개설) 국제교육기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24개의 국제교육 학교 지정 예정
  - 해당 학교는 졸업생의 50% 이상이 제2외국어 능력 2급 이상을 취득하고, 학생의 90%가 IT 활용 기초 자격 소지를 목표

### 【교육훈련부에 건의 및 요청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제2외국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정보학, 예술(음악, 미술) 등 학위 소지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여 정규 교원으로 채용이 불가능
- (요청사항) 호치민시사이공대학교 등에서 제2외국어 및 정보학, 예술(음악, 미술) 정규 교원 양성과정 운영 허가를 요청

## □ 향후 전망

- 교육훈련부의 교원양성 과정 승인 확대로 정규 교원의 부족 문제 해결 및 임용 경쟁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가능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 양정으로 호치민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정규 교과 편성 확대될 예정



교육원명	주파라과이한국교육원
제 목	파라과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결정
원출처	<a href="https://www.lanacion.com.py/pais_edicion_impresa/2022/04/21/apoyan-el-uso-del-tapabocas/">https://www.lanacion.com.py/pais_edicion_impresa/2022/04/21/apoyan-el-uso-del-tapabocas/</a>

## □ 배경

-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감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가 결정되었음.

## □ 주요 내용

- 루이스 라미레스 사립학교 연합회 회장은 “마스크 의무화 폐지라는 새로운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선생님들도 만족해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이제까지 방역지침을 잘 지켜왔으며, 향후 특별한 규정 없이도 방역지침을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 그는 “**현 행정부가 교육기관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각 교육기관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합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교 건물 내에서 학생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며, 교육과학부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함.

## □ 향후 전망

- **마스크 의무화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그동안 지켜왔던 손 자주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기존에 지켜왔던 방역지침 중 좋은 행동 수칙들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면 코로나19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